

[기획] >> 4면
송도캠퍼스 난항

[기획] >> 5면
통학버스 문제

[사회] >> 8면
음주운전

[인물] >> 12면
김성훈 감독

우리학교 송도캠퍼스 조성 표류, 13년의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난 2011년 우리학교가 약 200억 원에 인천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 부지를 매입한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도캠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다. △송도캠 개발 과정 및 현황△송도캠을 향한 여러 가지 입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창휘영 기자 07hwio@hufs.ac.kr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 쿠팡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은 지난 17일 쿠팡(Coupang) 잡실 사옥에서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이 전문통번역사 양성 지원과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학교 △곽순례 통번역대학원장 △이윤석 산학연계부총장△임향옥 한영과 주임교수△조 토마스(Jo Thomas) 쿠팡 글로벌 채용 총괄△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쿠팡 법률 고문 및 최고 행정 책임자(이하 해롤드 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측 간 미래 협력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학교와 쿠팡은 △인턴십(Internship)△캠퍼스 리크루팅(recruiting)△특강 등 통번역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윤석 우리학교 부총장은 “국내 최고의 통번역 전문 교육기관인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통번역 이론과 실무 역량을 쌓아온 전문 인재들에게 앞으로 커리어를 확대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산학

협력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좋은 선례로 남길 바라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롤드 책임자는 “쿠팡에 근무하는 수많은 글로벌 인재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의사소통△회의의 진행을 위해 전문 통번역사의 역할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외대의 훌륭한 통번역 인재들이 유통과 물류뿐만 아니라 AI와 OTT 등 쿠팡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유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쿠팡은 매년 전문통번역사를 정규직으로 꾸준히 채용하며 계약직이나 파견직 위주였던 통번역 채용 시장에 뉴노멀(New Normal)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250여 명의 전문통번역사와 번역사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역 출신의 글로벌 인재들과 협업하고 있다.

이병찬 기자 08byeongchan@hufs.ac.kr

우리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해외인턴십·산학교류를 위한 산학 연계 체결

우리학교 AI(Artificial Intelligence)교육원은 SW(Software)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 운영 목표인 AI 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융합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다수의 AI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해외 인턴십(Internship)등의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학교 SW사업단과 산학 연계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디지엑스(DigiEX)△더벤처스(The Ventures)△비엠오(VMO Holdings)△오풀러스(Opulus)△테크밸리(Tech Valley)△휴테크(HUTECH)등 10여 개 AI 기업이다. 우리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영어 교육△해외인턴십△산학 프로젝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나아가 우리학교 SW사업단은 싱가포르의 구글(Google) 베트남의 비엔지(VNG) 등 아시아의 주요 IT 회사와 연계해 AI와 SW 분야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넓히기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이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각국의 소프트웨어 및 IT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세중 우리학교 AI교육원 교수는 “우리학교의 해외 교육 및 인턴십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현장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참가자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해왔다”며 “이번 프로그램 또한 참가 학생들에게 존 켈러(John M. Keller)의 ARCS(△Attention△Relevance△Confidence△Satisfaction)모델을 기반으로 △관련성△관심△만족감△자신감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학과 학생들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및 기술 인사이트를 갖춰 향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낙현 우리학교 AI교육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기업들에게 국제 비즈니스 및 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산학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미래의 언론인, 109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4. 6.4 (화) ~ 6.14 (금)

모집대상: 양 캠퍼스 3학기 활동 가능한 재학생 (교육기간: 방학기간 중 주말 제외 3주 예정)

임기: 24-2학기 ~ 25-2학기

지원방법: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및 에브리타임 확인

필기시험/면접: 서류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연락

활동혜택: 언론 장학금 및 활동비 지급

취재 교육

자기 이름의 신문 기사 발행

명함 제공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

문의: 임채린 편집장 010-5650-5817

우리학교 GTEP사업단, ‘2024 월드IT쇼’ 참가

우리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은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COEX)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4 월드IT쇼(WIS 2024)’에 참가해 국내외 전시회 활동을 이어나갔다.

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전시회 ‘WIS 2024’에선 글로벌 ICT 기업과 국내외 주요 통신사들이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온디바이스(On-Device) 분야의 최신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는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중견△중소 기업이 대거 참가해 신규 사업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인 장이기도 하다.

우리학교 GTEP사업단은 협력업체인 ‘모키보(Mokibo)’의 터치패드(Touchpad) 내장 퓨전키보드(Fusion Keyboard) 기능을 보유한 아이패드 케이스와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프리앵글(Free Angle) 케이스 등에 대한 판촉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해외 소매 업체 및 국내 기업으로부터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도 다수 의뢰받아 현장 판매까지 진행해 예산을 뛰어넘는 수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우리학교 GTEP 사업단은 광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메가쇼



▲2024 월드IT쇼 참가자들의 모습 (출처: 전락홍보팀)

2024와 코엑스 제6회 대한민국맥주박람회 ‘KIBEX 2024’에도 참가해 수출 현장에서 무역전문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월드IT쇼에 참가한 성민지(경상·GBT 21) 씨는 “수많은 고객과 바이어(Buyer)를 만나 제품 설명 등 상담 과정에서

사업단에서 익힌 무역 지식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방문객에 따라 제품 설명 순서와 강조점을 다르게 할 때 고객의 흥미와 그에 따른 판매율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실전에서 경험한 성취감과 더불어 소비자의 필요를 더 가까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GTEP사업단은 일본에서 열리는 ‘케이콘 재팬(KCON JAPAN 2024)’과 싱가포르가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세계면세박람회(TFWA 2024)’에 참가한다. 또한 중국에서 열리는 ‘상해 미용 화장품 전시회(China Beauty Expo 2024)’와 태국에서 열리는 ‘2024 태국 식품 전시회’에도 사업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엑스에서 열리는 ‘코스모뷰티 서울(COSMOBEAUTY SEOUL) 2024’ 등 국내 전시회에도 참가했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한국문학의 세계화’ 학술대회 개최… 한국문학의 △번역△비평△출판에 대한 논의의 장 열려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식	윤선경 (해미연구소 소장)
	시회: 오윤영 (한국어대)	
13:50-14:30	기조강연: ‘한국문학의 세계화’에서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으로, 그 현황과 과제	최홍환 (한국문학비평 원장)
	Acting Human in Front of the Machine: Literary Translation Strategi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ake Levine (해미대) 논문자: 김민정 (국어대)
14:45-15:30	비평을 위한 인물과 저작권 문제	장지우 작가/번역자 (해미연구소/해미대)
	토론자: 최현희 (한국어대)	
15:30-16:15		윤식
16:30-17:15	번역에서 문학으로: 대본과 스테이지의 언어번역을 중심으로	윤선경 (한국어대) 토론자: 윤성우 (한국어대)
	시회: 윤선경 (한국어대)	
17:15-17:50	종합 토론	토론자: Jake Levine, 장지우, 김민정, 윤성우, 최현희

지난달 31일 우리학교 영미연구소는 대학원 브릭스 홀(BRICs Hall)에서 한국문학 세계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번역△비평△출판의 역할을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을 맡은 곽효환 한국문학비평원 원장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넘어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한국문학 번역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제이크 레빈(Jake Levin) 한국문학 번역가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에 당연한 문학번역가의 고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정지우 작가 겸 변호사는 한국문학을 비평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용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윤선경 우리

학교 영미연구소 소장 (이하 윤 소장)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우리나라 소설가인 ‘한강’ 작가의 작품을 섬세한 번역으로 온전히 담아내 원본의 주제 의식과 문학성이 살아 있는 새로운 영어 작품으로 다시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엔 발표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활발한 대화와 의견이 오갔다. 대표적으로 △근대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최현희 우리학교 교수△번역철학 및 윤리를 연구하는 윤성우 우리학교 교수△한국문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번역가의 역할을 연구하는 김자경 이화여대 교수가 학술대회 토론자로 나섰다.

윤 소장은 “제가 작성한 ‘체식주의자’ 번역 비평 글이 원작가의 개입으로 출판되지 못했던 사건을 겪으며

한국문학의 번역과 세계화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번역△비평△출판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행사 의의를 전했다.

이병찬 기자 08byeongchan@hufs.ac.kr

우리학교 수림문화재단 공동「시네라운지 118」영화제 개최

우리학교는 지난달 1일 동대문구 홍릉에 위치한 김희수아트센터에서 수림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시네라운지 118 영화제(CINELOUNGE 118: Film Festival)’를 개최했다.

수림문화재단과 우리학교가 함께 진행한 이번 영화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가들의 영화 총 12편이 상영됐으며 지난달 1일 포르투갈어권 영화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목요일△금요일 저녁에 진행됐다. 이번에 상영된 12편의 영화는 11개국의 주한대사관이 추천한 영화로 △스페인어권△유럽어권△중동어권△포르투갈어권 작품에 한국어와 영어 자막과 함께 상영됐다.

임소라 우리학교 포르투갈어과 학과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 최규학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어려운 영화를 각국의 대사관들과 협력하여 상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영화제 개막작인 포르투갈 영화 ‘살게이트루 마이아: 디 임플라케티드’는 포르투갈의 독재를 마무리한 1974년



▲시네라운지 118 영화제 포스터

카네이션 무혈혁명의 주인공 공에 관한 드라마로 카네이션 혁명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포르투갈 대사관이 추천한 작품이다. 수자나 바스 파투(Susana Vaz Patto) 주한 포르투갈대사는 개막작 상영 전 인사말을 통해 카네이션 혁명 50주년의 의의를 언급하며 영화제 전체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했다.

시네라운지 118 영화제는 우리학교 △스페인어권△유럽어권△중동어권△포르투갈어권 교수들이 △각국 대사관△관련 기관△문

화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양질의 영화를 준비했다. 영화제를 총괄하는 가정준 우리학교 운영위원장장은 “국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우리학교와 수림문화재단의 협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찬 기자 08byeongchan@hufs.ac.kr

우리학교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우리학교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단은 지난 한달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우리학교 도서관 5층 휠라아쿠쉬네트홀(Fila Acushnet Hall)에서 ‘2024 일본 서벌턴(subaltern)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미쓰와카 유사쿠(満若勇咲) 감독의 ‘나의 이야기, 부락 이야기’△모리 다쓰야(森達也) 감독의 ‘1923년 9월’△박수남, 박마의 감독의 ‘되살아나는 목소리’△스나이리 히로시(映画監督) 감독의 ‘오카나와에 사랑을 담아’ 등 4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특히 일본 감독들은 이번 영화제에 직접 참석해 관객들은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인 ‘서벌턴’은 일본 사회의 주류 집단에 의해 △문화△사회△정치적 괴지배계급으로서 침묵을 강요당해 온 ‘말할 수 없는’ 약자를 뜻한다. 이번 영화제를 주최한 우리학교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일본사회의 서벌턴 연구: 동아시아의 소통과 상상’이란 연



▲서벌턴 영화제 포스터

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일본연구소는 이를 통해 일본 사회의 주류 집단에 의해 △문화△사회△정치적 약자로서 침묵을 강요당해 ‘말할 수 없었던’ 서벌턴이 ‘말할 수 있는’ 주제로 전환되는 주체성 형성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박용구 우리학교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단 단장은 “△동아시아△우리나라△일본은 지역의 일부를 공유하고 정치·경제적으로도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서벌턴 문제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 동아시아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중요한 주제”라고 밝혔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지식출판콘텐츠원 손실 증가, 효율적인 콘텐츠와 출판을 위해선

지난달 28일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과 김종철 우리학교 이사장 등 이사진 7명과 감사진 2명이 참석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4년 제5차 이사회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식출판콘텐츠원(이하 지식출판원)의 출판물 재고자산은 약 21

억 원이며 이 중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이 약 1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출판원은 이를 매해 약 1억 5천만 원씩 손실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식출판원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지식출판원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사업지원처 산하의 지식출판원은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간행하는 부처다. 이를 통해 학문의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외국어사전 편찬△출판도서의 보급 및 관리△학교 간행물의 출판△학술 및 교양도서와 교재의 출판을 비롯해 기타 출판 및 판매업무에 관계된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지식출판원은 지난 1963년 설립된 이후 총 985종의 출판물을 발행했으며 720종의 도서가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 법인인 동원육영회의 '2024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식출판원의 재고자산 21억 원 중 약 17억 원 상당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출판원은 △기타 기부금△사업수입금△학교 보조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이를 교비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손실 금액이 막대하다는 점과 남은 예산은 교비회계에 전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손실액의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출판원의 손실은 전자책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2011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녹색성장을 위한 전자책 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단말기 생산 등에 따르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고려했을 때 64권 이상부터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환경에 이롭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 사이에서 종이책보다 휴대와 필기가 편한 전자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거운 종이책을 들고 다니기보다 전자기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자책을 자주 이용한다고 밝힌 강형우(아시아·이란어 22) 씨는 “단어를 검색하거나 필기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이 편리해 종이책보

다 전자책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대학 도서관에서 학생 1인당 종이책 대출 권수는 2011년 8.3권에서 2023년 2.3권으로 줄어든 반면 전자 자료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이 종이책의 실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식출판원의 종이책 또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불법 복제 문제도 지식출판원이 겪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교재를 스캔 후 전자기기를 이용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비영리 목적의 한정된 범위 내 사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다수가 이용하는 복제기기를 통한 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즉 구매했던 책을 복제해 혼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복제 업체를 통해 책을 복사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이다. 복제한 파일을 공유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2019년에 발간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58.4%가 불법 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2월 지식출판원은 서울캠퍼스 제58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및 전자책 판매처인 'SCONN 북카페'와 협업체 일부 교재의 전자책을 도입했다. 총학에 따르면 미네르바인문 교재의 경우 한 학기의 교재 대여료는 정가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이며 구매 시엔 정가와 같은 가격이다. 총학은 가벼운 등교와 부담 없는 학습을 위해 전자책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지식출판원 관계자는 경북대학교에선 지난 2020년 도서관 홈

페이지에 전자책 신청란을 만들고 교재 전자책 도입을 확대하는 등 편리한 교재 사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공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플랫폼(platform)인 '캠퍼스북'을 도입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전자책이 가져오는 문제점도 있다. 책 파일 공유가 비교적 용이해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지식출판원 관계자는 “추세에 따라 전자책 사용을 늘리고 필요한 만큼의 종이책만 인쇄할 예정이다”라 덧붙였다. 이렇게 지식출판원의 무의미한 손실을 줄이는 것은 환경 보호는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종이책 선호도 감소에 따른 지식출판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후속보도

나라를 지키는 예비군들의 학습권, 이제 우리가 지킬 때

지난 1079호에서는 학생예비군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해 다뤘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체감하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 현황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훈련장에서 우리학교 학생예비군 훈련이 진행됐다. 우리학교 교무처에선 교감사에게 △수업 관련 자료 제공△수업보충 실시△유고결석 처리 등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우리학교에선 예비군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의 출결이 결석 처리되거나 참여 기반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결석 처리된 학생이 이에 대해 해당 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한 결과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이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에 “이는 우리 △병역법△예비군법△제대군인지원법△헌법 모두를 위반하는 사안이다”며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빠른 시일 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또한 예비군법 제10조 위반으로 해당 교수를 고발했으나 동대문경찰서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학교장을 처벌하고자 하는 조항이므로 교수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국 179개 대학에 같은 내용으로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권고에 따라 학칙을 개정한 대학은 99곳뿐이었다.

이러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학교와 학생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양 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생예비군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성적 불이익 방지를 위해 교무처와 면담을 진행했다. 교

무처는 ‘학생 유고결석결시규정’을 개정해 학생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학사종합지원센터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을 자동으로 출석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총학 차원에서의 예비군 복지 사업도 진행됐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은 지난해 빵과 간식을 제공했으며 올해엔 △빵△이온음료△자외선 차단제를 제공했다. 또한 학습권 침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수업권 보장을 위한 자체 보완책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다른 학교에서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선 지난해 11월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의 쪽지시험을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한 것과 함께 결석 허용 횟수에 예비군 훈련도 포함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다. 울산대학교(이하 울산대) 또한 지난 3월 한 교수가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지해 원성이 있었다. 울산대 관계자는 이에 “매해 교수들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줄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며 “학사관리팀에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출석에 관해 문의한 학생에게 “조국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라”며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같은 해 서강대학교에선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쪽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제57대 총학은 훈련 일정 및 셔틀버스 수용 인원 등에 대해 예비군연대와 면담을 진행하고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총학은 총학 차원의 ‘학생 예비군 필기자료 공유 사업’을 통해 학생예비군에게 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료 공유 희망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안이 반복되며 학생예비군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방지와 학습권 보장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자자하다. 특히 이번 예비군 훈련에선 일부 학과 학생회가 예비군훈련 날짜에 간식행사를 진행해 학생예비군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LD(Language&Diplomacy)학부 학생회는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기말고사 간식행사를 미웠으며 스페인어과 학생회 역시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학생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많이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존재한다. 법적으로 규정된 만큼 전역 후에도 국가를 위해 훈련을 받는 학생예비군들의 학습권이 원활히 보장돼야 할 것이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우리학교 송도캠퍼스 조성 표류, 13년의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난 2011년 우리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약 200억 원에 인천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도캠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학교 송도캠의 개발을 둘러

싸고 여러 입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송도캠 개발 과정 및 현황△송도캠을 향한 여러 가지 입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송도캠 개발 과정 및 현황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지난 2008년 제3캠퍼스 조성 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2011년 우리학교는 송도에 약 2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제3캠퍼스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확보한 부지 내에서 송도부지 1단계 개발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 이어 2020년 송도부지 1단계 개발 공사 준공식을 개최한 우리학교는 국내 최초의 삼원화 캠퍼스를 이룩할 것이라는 많은 이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제3캠퍼스라 불리는 송도캠은 첨단 분야 학과를 신설해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었다. 지난 2020년 우리학교는 송도캠을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기반 산학협력 혁신 캠퍼스로 개발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현대건설△ZINOL D&C와 개발 사업 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해 3,000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지한 바 있다. 구체적인 투자 명세는 △강의 연구 단지 2,400억 원△데이터 플랫폼 단지 300억 원 △글로벌(Global) 기숙사 300억 원이다. MOU 체결 당시 김인철 우리학교 전 총장은 “대학도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로 혁신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번 사업은 송도캠을 첨단산업 인재 양성소로 만들 것이다”며 “이번 MOU가 대규모 산학연 협력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도캠은 송도부지 매입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최초 캠퍼스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20년 1단계로 개발된 ‘외대국제교육센터’만 준공된 상태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까지 완공 예정이었으나 거듭된 계획 수정을 거쳐 2026년으로 완공 예정 연도를 변경했다.

이처럼 캠퍼스 조성에 제동이 걸린 주요 원인은 송도캠 이전과 관련된 법령이다. 사실상 송도캠 이전사업의 최대 난관은 교지 확보율이다. 송도캠이 본교에서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송도캠으로 학부나 학교 정원을 이동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위치 변경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캠퍼스 이전을 위해선 기존 캠퍼스와 이전하는 캠퍼스 모두 학생 정원에 따른 기준 면적을 10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22년 우리학교 설캠 면적은 재학생 기준 25만㎡지만 보유 면적은 8만㎡에 불과해 교지 확보율은 41%로 미달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캠퍼스 이전 승인이 계속해서 반려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하반기 교육부가 규제 완화의 취지로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며 첨단학과의 경우엔 신규 캠퍼스만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풀린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우리학교는 ‘바이오메디컬공학부’와 ‘Finance&AI 융합학부’ 등 2개의 독립학부를 대상으로 교육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첨단분야심의위원회에서 이 2개의 독립학부가 첨단분야로 미인정돼 교육부로부터 이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해엔 관련 법률 규제가 완전히 완화돼 어떤 학과든 구성이 되면 심의를 통해 이전할 수 있게 되자 우리학교는 다시 교육부에 위치 변경 계획 승인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관해 우리학교 전략기획팀 측은 “현재는 재심의를 위한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전했다.

◆송도캠퍼스를 향한 여러 가지 입장

현재 우리학교 송도캠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송도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살펴보면 입결의 측면에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송도캠의 개교를 통해 우리학교가 삼원화 캠퍼스가 된다면 현재 겪고 있는 이원화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권오건(통번역·독일어 23) 씨는 “각 캠퍼스가 독립적으로 특성화된 성격을 갖게 돼 우리학교의 입결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교통편과 관련해서 우리학교 학생 A 씨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고 있어 글캠으로 통학할 때마다 교통편이 복잡하고 불편했다”며 “추후 송도캠으로 학과가 이전된다면 지금보다 통학이 훨씬 용이할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선 대학로와 같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월 인천경제자유

<주요 수정 내용>							
항목		수정내용					
송도캠퍼스 운영개요			학부				
	학과수	3개 독립학부		학과수	2개 독립학부		
	인원	100명		인원	100명		
※ 학부: 첨단 신기술 분야 한정					※ 학부: 첨단 신기술 분야 한정		
이전대상			학과명	인원			
	독립 학부	핀테크학부		30	독립 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50
		ESG학부		30		바이오메디컬공학부	50
		바이오메디컬공학부		40			합계
			합계		100		
이전 후 교육변화	서울	글로벌	송도				
	변동없음	-100	+100	서울	글로벌	송도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39, 글로벌자유전공학부: -61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50, Finance & AI융합학부: -50			

▲송도캠 학부 운영 계획 (출처: 우리학교 홈페이지)

구역청은 연수구 송도에 캠퍼스를 둔 10개 대학교인 △겐트대학교△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 국제캠퍼스(이하 국제캠)△유타대학교△인천가톨릭대학교△인천대학교△인하대학교△재능대학교△한국뉴욕주립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와 송도 글로벌캠퍼스 일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전략기획팀은 “문화거리 1단계 공사엔 지하철역부터 연세대 부지 가운데를 지상 보행로로 조성할 수 있게끔 편리한 이동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2단계 공사에선 해당 문화거리에 우리학교가 포함된 계획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근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학생 B 씨는 “송도캠이 문화 거리에 포함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할 나위 없이 높을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송도캠 개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지난 2021년 우리학교는 송도캠 조성 사업이 지연되며 면제됐다고 알려진 연간 3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했다. 같은 해 데이터센터가 교육·연구시설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송도지역 민원까지 발생하며 데이터센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위치변경 계획서를 변경해 교육부에 재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4월 글캠에서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 정견토론회 당시 선거운동본부 ‘너울’은 실습 인프라 개선 및 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질의에 “글캠 도서관 리모델링에 관해서 송도캠에 관한 세금 문제가 걸려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에 송도캠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실습 인프라 개선과 도서관 리모델링 등의 공약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 정견토론회 이후 학생들 사이에선 대부분의 학교 시설이 개발되지 않는 이유가 송도캠퍼스의 예산 문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만연해 있다. 이에 우리학교 전략기획팀 측은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어쩔지 모르겠지만 둘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학교는 각 캠퍼스의 학업적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캠퍼스 간에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성화를 갖추고 자생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추도록 송도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송도캠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문제들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송도에 제2캠퍼스를 둔 다른 대학교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연세대는 지난 2006년 인천시와 연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캠의 명칭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완공됐다. 연세대는 협정 체결 당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협정 또한 함께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계획이 지연되며 지난 2021년 기공식을 통해 시공 소식을 알려 15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단계 사업에서의 시공사 간 분쟁으로 인해 인천시로부터 부과받게 되는 패널티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실제로 연수구가 세금 30억 원을 거둬들였고 종부세까지 고려 시 100억 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연세대의 꾸준한 조속 건립 요구와 심의가 있었고 지난 2022년 연세대 측이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 청구를 한 결과에서 과세 취소 결정을 받아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았다.

현재 우리학교는 송도캠과 관련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견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학교 전략기획팀 측은 “교육부에 송도캠 승인 요청서를 낼 당시 2026년 개교를 목표로 기재해 두었다”며 “착공 허가는 관련 구청에 신고한 상태고 이에 맞춰 준비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건설 재개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학생 C 씨는 “송도캠의 예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현재 낙후된 학교 시설들을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가 지난 13년간 난항을 겪은 송도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삼원화 캠퍼스 체제를 이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흔들리는 셔틀버스, 신뢰의 핸들을 잡기 위해선

지난달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약 40명을 태운 통학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측 뒷바퀴가 터지고 버스 밑바닥이 뚫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학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셔틀 기사님 신

고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 중에 전화 및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진 및 영상이 포함됐다. △교내 통학버스의 실태△학교 측의 조치 및 구체적인 원

인△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교내 통학버스의 실태

현재 우리학교 통학버스는 총 19개의 노선을 하루에 총 49회 운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및 광주△삼성 및 수서△잠실 및 천호 및 하남△판교 및 서현 노선 등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각 1~2회씩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버스 1회 이용시에 대부분 노선의 요금이 2500원을 넘지 않으므로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지하철 및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인기가 많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괄지원팀이 이번 달 5일 외대학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통학버스는 일평균 약 7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을만큼 수요가 크다.

우리학교 통학버스로 통학 중인 A 씨는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글로벌캠퍼스로 통학하려면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번 갈아타야 한다”며 “글로벌캠퍼스에 통학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우리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 캠퍼스 간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최병진(동유럽·세크여 19)씨는 “통학버스가 없다면 서울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여러 학생들이 우리학교 통학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런 와중 지난달 21일 에타에 ‘셔틀 기사님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엔 우리학교 천호행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해당 글의 작성자는 운전기사가 운전 중에 전화 통화 및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게시물에는 합산하면 약 250개 이상의 공감 표시와 약 6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공문화됐고 이에 따라 여러 학생들이 우리학교 통학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캠 총괄지원팀에 문의했다. 지난 5일 글캠 총괄지원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B 씨는 “여전히 해당 기사님이 핸드폰을 계기판 위에 두고 운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하차할 때면 휴대폰을 덮어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직 조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글캠 총괄지원팀에 문의했다.

우리학교 통학버스는 안전문제 외에 다른 문제점도 있다. 현재 우리학교 통학버스는 모바일 승차권 구매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별로 노선 및 일자별 승차권 구매 개수를 제한해 학생들의 입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페이코 애플리케이션(Payco Application, 이하 페이코앱)을 통해 사전에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일 우리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동영관광 측은 “페이코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승차 요구를 일부 버스 기사들이 허용했다”며 “기사들과 학생들에게 다시 공지를 하겠다”고 전했다. 즉 운전 기사의 소홀한 관리 속에 모바일 승차권 구매 예약제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입석 승차를 야기해 안전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버스를 이용하지만 교통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 시간에 통학버스 승하차가 이뤄지지 않아 수업에 지각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이에 김민관 우리학교 글캠 총괄지원팀 부장

(이하 김 부장)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더욱 적합하도록 버스 운행 시간을 앞당기고 싶지만 버스 업체가 우리학교 노선 외에 다른 노선도 운행한다”며 “이들과 모두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행 시간 조정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차 중인 교내 통학버스의 모습

◆학교 측의 조치 및 구체적인 원인

우리학교 글캠 총괄지원팀은 천호행 통학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본 사건에 관해 버스 업체 측에 안전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전했다. 글캠 총괄지원팀이 지난 3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 업체는 “해당 버스 기사님과 개별 면담을 진행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며 “향후 절대로 운전 중에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겠다는 기사의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총괄지원팀의 요청대로 해당 기사는 다음 학기부터 통학버스 운행에서 제외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버스 업체와 해당 버스 기사의 개별 면담 이후에도 지난달 28일 에타에 여전히 동일한 버스 기사가 유튜브를 시청하며 운전 중인 장면이 담긴 글이 게시됐다.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우리학교 측의 관리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우리학교는 통학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매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월 23일과 지난달 29일에 실시된 우리학교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자료에는 △대고객 서비스 향상△성희롱 주의△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운행시간 준수△차량 시설 점검 등의 내용과 함께 교육에 참석한 운전 기사들의 서명이 담겨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실제로 버스 기사가 교육 자료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우리학교는 매달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버스 기사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버스 업체다”라며 “그렇기에 버스 업체에 해당 운전 기사에 대한 교육과 운행 금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버스 업체의 교체가 어려운 구조 또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학교는 통학버스 노선을 운행할 버스 업체를 3년에 한 번씩 입찰 형식으로 선정한다. 지난 4일 글로벌캠퍼스 총괄지원팀 운수팀은 “입찰에 지원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만약 입찰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하겠지만 현 상황에서의 업체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버스 업체가 바뀌는 주기가 3년이므로 그 기간 동안

은 해당 버스 업체의 운전 기사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도 버스 업체의 조치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운수팀은 이에 대해 “해당 문제는 통학 버스 업체를 선정하는 대학들의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경우 과거부터 통학버스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서울대의 대학신문에 따르면 작년년부터 △부정확한 배차간격△입석 허용△작은 버스 투입△통학버스 대기인원 혼잡 등의 문제점이 기사로 작성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작성된 ‘당신이 모르는 셔틀버스 이야기’란 글은 제2공학관행 버스가 과속 운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운행하는 버스 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서울대는 △버스 업체△주민주민△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통학버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며 통학 버스 GPS 시스템 및 시범 통학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에서도 학생들이 셔틀버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2022년 11월 21일 발행된 ‘셔틀버스 초과인원 탑승, 학생들 안전 우려’나와’란 제목의 이대학보 기사엔 초과인원 탑승으로 인한 위험성 및 버스 노후 문제가 언급됐다. 해당 기사 이후 이화여대는 공개적으로 셔틀버스 정기점검을 진행했다.

이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통학버스 및 셔틀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과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존의 부족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버스 시설점검△고객 대응△장시간 운전 등을 잘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글캠 총괄지원팀에 제보한 C 씨는 “대부분의 버스 기사님들이 친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학교 통학버스에 제기된 문제는 수많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신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버스 기사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버스 기사들에 대한 학교 및 버스 업체의 관리 소홀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안전한 우리학교 통학버스 운행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미국 오네온타에서 외치는 I♥NY

‘In New York, Concrete jungle where dreams are made of’ 흔히 뉴욕주(New York State)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화색 건물이 가득한 도시에서 한 손에 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번 해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교환학생 생활을 했던 곳은 그런 이미지와 거리가 먼 ‘오네온타(Oneonta)’라는 외곽 지역이었다.

교환학생 지원을 결심한 계기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전부터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목표와 욕심이 있었지만 다른 학업이 바빠 영어 공부는 늘 뒷전으로 미루곤 했다.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어권 국가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했다. 여행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권 대학 대신 미국에서도 외진 지역에 위치한 ‘SUNY Oneonta’ 대학을 선택했다. 또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학비가 굉장히 비싸서 금전적 부담이 적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을 준비하게 됐다.

외진 지역의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엔 극명한 장단점이 있었다. 먼저 교통이 불편하던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서울과는 달리 오네온타의 대중교통은 오로지 버스뿐이며 배차간격도 길고 갈 수 있는 곳도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만큼 캠퍼스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그래서 현지에 짧게 머물다 가는 교환학생이 아닌 진짜 미국 대학생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룸메이트와 친해지기△시험 기간엔 도서관에서 공부하기△팀 과제를 하며 새로운 친구 사귀기 등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을 통해 미국 문화에 스며들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교환학생을 간 학교에

선 교내 행사와 교환학생 현장 학습 프로그램이 매우 잘 구성돼 있어서 불편한 교통으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장 학습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트립(Niagara Falls Trip)△메이플 농장 투어(Maple Farm Tour)△브로드웨이 트립(Broadway Trip)△빙엄턴 아이스 스케이팅(Ice Skating in Binghamton)△하우 동굴 투어(Howe Caverns Tour) 등을 다녀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 봄방학 기간 동안엔 뉴욕시(New York City) 여행을 다녀오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다. 뉴욕시처럼 역동적인 도시를 여행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이니 오네온타로 교환학생을 계획하고 있는 학우가 있다면 꼭 뉴욕시를 여행해 보길 추천한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상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포괄성’이다. △성 중립 화장실△장어가 있는 학교 직원△타인의 경쟁이 아닌 자신의 결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성적평가 시스템 등 크고 작은 부분에서 미국의 포괄성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미국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렇게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며 해외 생활과 취업



에도 관심이 생겼다. 기대보다 걱정이 컸던 교환학생이었지만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과 경험을 쌓고 돌아올 수 있었다.

유고은(사회·미디어 20)

스페인

<거대한 날개를 가진 아주 늙은 남자>

- 타인과 공존하는 삶을 위해선 -



‘거대한 날개를 가진 아주 늙은 남자’는 콜롬비아의 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의 작품이다. △백년의 고독△사랑의 묘약△예고된 죽음의 연대기 등 다양한 소설을 집필한 그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마르케스의 작품들은 현실과 환상을 융합해 독특하고 매혹

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이른바 ‘마법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소설은 한 마을에 폭풍우가 지나간 후 거대한 날개를 가진 늙은 남자가 발견되며 시작한다. 사람들은 그의 신기한 겉모습을 보고 그를 천사로 여기며 기적을 기대했지만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를 동물처럼 대하기 시작한다. 늙은 남자는 닭장에 갇혀 지내게 됐고 그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식어간다. 결국 늙은 남자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천천히 회복하며 날아가 버린다.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만 그들은 곧 일상으로 돌아가며 과거의 사실을 잊어간다.

이 작품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주목한다. 늙은 남자가 특별한 능력을 보이지 않자 실망하며 그들은 늙은 남자를 도구로 삼아 돈을 벌었다. 또한 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게 반응한다. 이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쉽게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늙은 남자를 처음 발견한 부부가 그를 닭장에 가두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장면과 이후에 나오는 “그의 날개는 그저 오래되고 더럽기만 했다”라는 대사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이용된 개인이 가치가 떨어졌을 때 사회가 어떻게 버리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람들은 종종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또한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태도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나 또한 마을사람들과 같이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관심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필요에 의해 쌓은 유대관계를 나도 모르는 새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았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우정도 어느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한줄명...

외대학보 기자들의 한줄 기사

기쁨: 외대를 만나니 외대학보가 보였대!

도현: HUFSPRESS Never gonna give you up and never gonna let you down.

병찬: 정말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학기에 함께하는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승원: 학보사랑 해? 학보 사랑해!

승준: 다음 학기에도 좋은 기사 쓰겠습니다.

예원: 108기 파이팅! 109기 어서와 *^^*

우현: 낮보다 아름다웠던 우리의 밤, 모두 감사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슬: 낮부터 밤까지 빛나는 외대학보 앞으로도 화이팅!!

진하: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언제나 만나면 인사해요!!

채린: 여러분의 찬란한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휘영: 여러분과 함께 항해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어도 후회는 없이 떠납니다.



청년 당뇨의 불씨, 조속히 꺼뜨리기 위해선

최근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년층의 당뇨병 유병률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이나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청년 당뇨병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뇨병은 더 이상 고연령층의 만성 질환이 아님을 인

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기사를 통해 청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의 정의와 현황△청년 당뇨병 급증의 원인 및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당뇨병의 정의와 현황

당뇨병은 혈액 내의 포도당이 높아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 데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 4대 성인병 중 하나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1형 당뇨와 인슐린은 생성되나 부족하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2형 당뇨로 분류할 수 있다. 당뇨병은 난치성 질환이기에 평생 관리해야 하며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그 증상을 알아채기 어려워 환자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무서운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중장년층의 만성 질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20~30대 청년층 당뇨병 유병률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소아당뇨에 이은 청년 당뇨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0~30대 당뇨병 진료환자는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74% 증가한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빅데이터에 방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39세 당뇨병 환자는 △2017년 128,729명△2019년 152,292명△2021년 170,94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은 난치성 질환이기에 대체로 고령의 환자보다 젊은 환자가 더 오랫동안 당뇨병 환자로 살게 된다. 따라서 고령 환자보다 젊은 환자가 △뇌졸중△망막병증△신경병증△신장병증△심근경색△협심증 등 여러 합병증의 발병 위험이 더 크다. 또한 당뇨병은 세대에 걸쳐 유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이른 나이에 합병증이 발생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며 당뇨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청년 당뇨병 환자 급증의 원인과 문제점

당뇨병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나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만△스트레스△식습관의 변화△운동 부족 등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가 포함되며 그 중 ‘식습관의 변화’가 최근 청년 당뇨병 환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과다 포함된 음식부터 식사 후 가볍게 마시는 액상과당 음료까지 당뇨병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청소년 및 청년층 사이에서 ‘마리탕후루(마라탕과 탕후루)’라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자극적인 음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자극적인 식습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도 식습관 변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개인 인터넷 방송 및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보편화로 음식의 과소비 및 전식 행위가 매우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접근성은 늘어난 반면 신체 활동은 줄어들어 불건강한 식습관을 야기하는 환경이 조성 됐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제로 슈거(Zero Sugar)’ 식품이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세계

보건기구에선 “제로 슈거 음료에 흔히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는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로 슈거 식품 또한 맹신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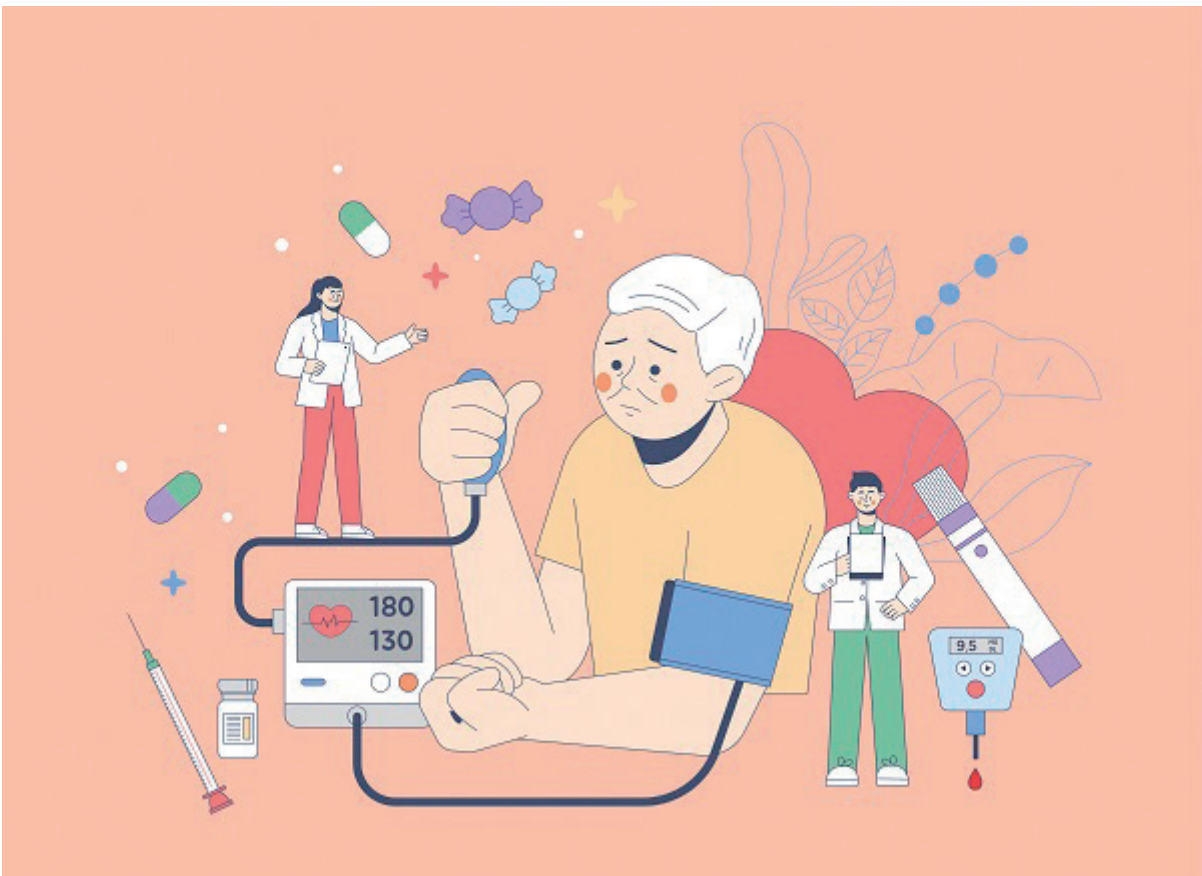
당뇨병의 전조 증상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의 증상은 △다뇨(多尿)△다식(多食)△다음(多飮)이며 경우에 따라선 △가려움증△무기력증△시력 저하△체중감소△피로감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증상이므로 간과되기 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대 당뇨병 환자의 80%와 30대 당뇨병 환자의 60%가 본인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이 병원을 찾지 않는 현상도 청년 당뇨병 환자 인지율과 치료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뇨병은 혈당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기

당뇨병과 관련한 캠페인 및 체계적인 교육 기회도 확충돼야 한다. 지난해 대한당뇨병학회와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에선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 20~30대는 당뇨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률은 높았으나 △공복혈당△당화혈색소△식후혈당과 같이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인식률과 당뇨병 관리 실천율은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30대는 질병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해 당뇨병을 간과하기 쉬운 연령대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고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를 추가하고 남녀 모두 35세부터 당뇨병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교육 기관에서도 △건강검진일을 병결로 인정하는 것△병원과의 제휴 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큰 금전적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보건실에서 교내 캠페인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 등의 노력을 통해 청년 당뇨병 환자 급증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은 대한당뇨병연맹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법’ 촉구 및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윤건호 전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이자 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대행은 “어린 시절에 혈당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은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고 기대수명을 늘리는 등 환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며 “관련 교육이 병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 수가 인정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명희 전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회장이자 현 한국당뇨병전문관리자협회 이사는 “당뇨병 환자는 매일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처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혈당과 고혈당을 오가는 문제로 커질 수 있기에 해당 법안을 통해 당뇨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당뇨병의 날: IDF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급증하는 당뇨병으로 인한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지정함.



▲이미지 출처 '헬스경향'

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거나 당뇨병 초기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내원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난 1월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빈곤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9~34세 청년 중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청년의 비율은 41.6%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47.1%)’ 또는 ‘병원비를 쓰는 것이 아까워서(33.7%)’가 꼽혔다. 결국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시간적 또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청년 당뇨병 예방을 위해선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해 식이요법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혈당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식후 30분 동안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브레이크 없는 음주운전, 안전한 제동을 위해선

최근 연예인의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아울러 피서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달 대비

14%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음주운전 문제 현황△음주운전 문제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음주운전 문제의 현황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대인사고로까지 이어진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돼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 여부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뤄진다.

이런 법적 제재에도 음주운전 사례와 그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해 기준 130,150건으로 이는 2021년과 2022년 평균 120,000건과 비교했을 때 10,000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각각 △사고 13,042건△부상 20,628명△사망 159명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음주운전의 재범률 역시 주목할 만한 문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동종 재범률은 45%로 이는 절도와 강도의 동종 재범률이 평균 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음주 뺑소니’가 있다. 전라북도경찰청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 건수는 117건으로 전체 뺑소니 사고의 18.6%를 차지한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의 주취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음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기에 피해자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휴가 중인 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피해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능형 범죄’의 증가 역시 주목해야 한다. 현장 단속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구강청결제나 음주 검사 채혈 당시에 사용한 알코올 솜 때문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추가로 술을 마시곤 사고 후에 마신 것이라며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들은 음주와 운전 사이의 연관성을 희석시켜 교묘하게 처벌을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음주운전 문제의 원인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문제의 원인으로 강화된 기준에 비해 집행되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문제가 꼽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기 위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최저 기준은 0.03%으로 이는 △독일 0.05%△미국 0.08%△영국 0.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실제 적발 시 처벌 수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그치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또한 동종 재범자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게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허술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음주 단속 중 적발됐을 경우 음주측정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인 측정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선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식 역시 실제 법정에선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거 연예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사례에서 경찰은 음식점의 CCTV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섭취한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란 이유로 위드마크 공식의 증명력을 부정했다.

높은 재범율에도 불구하고 법정 의무교육 이수 후의 감시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 역시 문제다. 현행법에선 음주운전 적발 시 횡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범칙금 감액△운전면허 재발급△



▲출처: 서울시

정지 이수 감경을 위해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교육 이수 후엔 별다른 제한 없이 운전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관용적 인식으로도 이어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2%가 주변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묵인하거나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이 본인도 음주운전을 해도 적발될 가능성이 50% 이하라고 예측했다. 또한 실제 적발되더라도 중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운전자의 수가 16%에 달했다는 점에 비춰 음주운전이 지닌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음주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를 두지 않고 한 번의 음주운전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뉴

질랜드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차를 강제로 매각한 뒤 벌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1년 동안 차량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한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회식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술을 권한 사람과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 주변인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코올(Alcohol) 중독과 같이 음주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사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면허 취득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운전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의 운전 자체를 차단함과 동시에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의 특성에 맞게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가적인 대안이다.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단순히 조정 시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 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정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듣도록 한다면 지속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지능형 범죄를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 기법의 발전과 이에 대한 적용도 요구된다. 최근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과수에선 알코올 분해 후에 발생하는 음주 대사체를 토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음주 대사체 검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72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불가능하며 설령 체노를 하더라도 국과수 의뢰 후 결과를 얻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일선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 이를 혐의 입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음주운전의 사전 방지를 위해 초보운전자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초보운전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운전의 초기단계부터 음주운전이 습관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또 시민의 안전과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단속 기준의 하한을 없애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닌 ‘운전을 할 때는 단 한잔의 음주도 안 된다’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근절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입법부를 비롯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음주운전의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수립될 수 있기를 귀추가 주목된다.

*위드마크(widmark):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해,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이다.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22대 국회 출범, 특검법 남발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여당 108석에 야권 192석으로 구성됐다. 첫 본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는데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갈등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그 결과 야권 의원들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개원한 제22대 국회는 개원 일주일도 안 돼 특검법만 5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채 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를 둘러싼 ‘김건희 특검법’과 ‘김성태 특검법’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한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 석유 매장 가능성 확인, 산유국 지위 되찾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에 석유 및 천연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에 대한 탐사 결과를 밝혔다. 140억 배럴의 가치는 1,900조 원 상당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5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추 성공률이 5% 정도이며 시추 작업을 한 번 진행하는 데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17년 동안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를 생산한 바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유국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 기대를 품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최근 지자율이 급락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론 환기를 위해 선부르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식료품 줄줄이 인상

식품업계에서 연이은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비비큐치킨(BBQ)’을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GENESIS BBQ)는 지난 4일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을 비롯해 23개 메뉴의 가격을 3,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McDonald’s)’는 16가지 메뉴를 최대 400원 인상한다고 밝혔고 ‘피자헛(Pizza Hut)’은 두 가지 메뉴의 가격을 3%씩 인상했다. 이렇듯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동종 업체에서 뒤따라 올리는 편승 인상이 지속되는 것도 문제라는 평가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정의 달에 가격을 올리면 비난을 받을까 봐 6월에 우후죽순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북한 대남 도발, 9.19합의 효력 정지

지난달 28일 오후 9시경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 수백 개를 우리나라 쪽으로 살포했다. 풍선이 관측된 오후 11시경에는 경기 일부 지역에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고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방한계선 GPS 전파를 교란하는 공격까지 감행하며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서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전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 해병대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과 해군 함정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늘어가는 우리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선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꾸준히 도시화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의 기반 시설 건설과 효율성에 치중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낙후되거나 재개

발이 필요한 지역이 증가해 획기적인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에 대해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Q1. 도시환경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도시환경에 관한 이론 중엔 '환경 결정론'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일상적인 행동△철학이 바뀔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 도시화율이 약 91%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도시에겐 도시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Q2. 우리나라의 현재 도시계획 체계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도권 계획'이 있으며 단계별로 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계획'과 '기초 시·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관리하는 '수도권 정비법' 같은 특별한 법도 존재합니다.

Q3. 수도권 도시계획과 비수도권 도시계획 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지방도시의 축소와 쇠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자생력이 강해서 저출산 시대에 올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지방도시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이나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비수도권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그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기업△학교가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부산 혁신도시'나 '울산 혁신도시'가 그것이지요. 이 외에도 원주의 경우 산업과 연구 시설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도시'라는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따르고 있습니다.

Q3-1.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이 초래하는 원인이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권엔 높은 임금의 일자리와 다양한 기반시설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통하는 도로교통망이 잘 형성돼 있어서 접근성이 높아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에 살고있는 시민이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자 지역 병원이 아니라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찾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Q4.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Youtube)' 같은 매체를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도시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빠른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지요. 이런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특징은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도시계획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단기적인 성과만 보고 정책의 방향을 바

꾸곤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결정 방식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아파트 중심의 도시경관이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이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파트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이유는 바로 운영관리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공사비도 저렴해 양질의 상품으로 거래하기도 안성맞춤이지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아서 단독 주택 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하숙집이나 빌라 같은 형태의 주거 문화가 많아질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주거형태보단 아파트 같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되죠. 결국 우리나라는 아파트 위주의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Q5-1. 획일화된 주택단지와 계획단지가 존재하는 미국과 유럽같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심 도시경관이 특히 문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심 도시경관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얼마든지 개성을 가질 수 있어요. 당장 서울에 있는 일부 고급 아파트를 보더라도 개성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적인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를 고급 아파트처럼 개성 있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높아진 집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획일화된 도시경관이 청년층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도시경관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보다 경제적 편리가 보장된 아파트의 안정성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Q.6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출퇴근 시간 수도권 대중교통과 도로의 혼잡도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 또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도로가 넓지만 국토가 거대해 도시간 연결을 수행하는 지하철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도시이기도 하죠. 유럽의 경우 도로가 정제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처럼 빈번하지 않지만 이는 유럽의 도시가 우리나라의 도시들처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Q7. 우리나라 도시의 △공원△녹지△휴게시설과 같은 지속가능한 공공시설의 현황과 한계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때 외부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제도지요. 이 제도를 통해 다른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공원같은 공공시설은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시설의 증가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야기하기에 지자체는 현재 세율에 맞는 적정선만큼의 공공 시설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Q7-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일단 공공시설의 부족 문제나 도로교통에 관한 문제는 결국 세금과 직결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의 수요가 수도권보다 적기에 만약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공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과 질을 높인다면 복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시민들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하기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근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획일화된 아파트 경관 문제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모전을 통한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물론 민간 건설회사의 경우 고급 아파트가 아니면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다양성 높은 아파트 건설을 꺼린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시설 확충의 경우 재건축이나 신도시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을 공원과 주상복합시설로 채워 시민 친화적인 도시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형 공원을 조성해 효율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판교 신도시가 있는데 다른 신도시와 녹지 면적은 비슷하지만 하천 중심으로 이뤄진 선형 공원이 다른 도시의 원형 공원이나 사각형 공원에 비해 주거지와 접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Q8.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속가능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원과 같은 시설은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기에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맑은 공기와 운동공간을 제공해 다양한 방면으로 시민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이로운 시설이기도 합니다.

Q9.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더욱 성숙한 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개인의 공간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이 교양과 문화를 겸비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도 문화와 교양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조성되길 희망합니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학보에서의 한 학기

요즘 나는 시간이 매우 빨리 흐른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 벌써 이번 학기 종강호를 마감하고 있던 와중 외대학보에 처음 왔던 순간이 다시금 떠오른다. 1학년 때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던 난 아쉬움을 느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의 활동을 해보고자 패기 있게 외대학보에 지원했다. 그 후 방학동안 수습기자 교육도 받은 후 새학기가 시작돼 외대학보 기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제안서 회의를 거쳐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며 다시 조판을 통해 마무리되는 일들이 쉽지 않았고 때론 벅차기도 했다. 인생에 있어서 취재를 하는 일이 처음이다 보니 모두 어렵고 겁부터 났다. 글썽씨도 좋지 않아 글을 이끌어가기 어려웠고 내 기사가 명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나조차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대학보에서의 소중한 인연들은 날 버릴 수 있게 해줬다. 낯을 많이 가려 인간관계가 좁았지만 외대학보의 동료들이 나와 잘 맞기에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글쓰기 실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 명쾌하게 나의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고 싶다.

내가 글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글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글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 글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글을 많이 쓰고 싶다. 물론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기에 아직 많이 어렵다. 나만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풀어 남들에게 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을 쓰면서 나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확고해지는 것이 글을 쓰는 것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책을 많이 읽진 않아도 혼자 생각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듯 생각의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 나가 잠을 못 이룬 적이 많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생각들은 쉽게 휘발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생각이 나면 글을 남겨 순간순간의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다.

내게 많은 깨달음을 준 외대학보에서의 시간은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들이다. 이 시간들은 취재와 기사 작성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줬다. 아직 확고한 꿈은 없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내게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는다. 내 기사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 이러한 값진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과 고생하는 우리 외대학보 동료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강예원 기자

[책 ‘급류’를 읽고] 낙화유수(落花流水)

사랑을 마주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이들은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사랑을 추구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채로운 사랑의 형태를 희망하며 살아간다.

정대건의 ‘급류’는 몇 번이고 급류에 빠진 서로를 구하며 사랑하는 ‘도담’과 ‘해솔’의 이야기를 묘사한다. 도담과 도담의 아빠 ‘창석’이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린 해솔을 구하며 시작된다. 두 가족은 서서히 가까워지고 도담과 해솔은 사랑에 빠진다. 불륜 관계였던 미영과 창석이 계곡에서 함께 헤엄치다 급류에 떠밀려 가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해솔이 할머니 집으로 떠난 뒤 둘은 자연스레 멀어진다. 이후 대학생이 된 둘은 우연히 만나 다시 사랑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도담은 자신의 불행이 그 누구의 것보다 클 것이란 자기방어적 사고를 이어가는 한편 해솔은 감정을 철저히 통제한다. 여름날의 사고가 둘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바꿔놓은 것이다. 결국 두 번의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고 난 뒤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과 비밀을 터놓고 다시 사랑하게 된다.

어렸을 적 바닷가 주변에 살았던 난 매일 바다를 보며 지냈다. 자주 가던 바닷가엔 낮은 절벽이 있었다. 절벽 아래서 항상 보던 풍경은 파도가 바위를 덮침과 동시에 물거품이 돼 흩어지는 장면이었다. 그때 찰나에 나타나는 물거품을 포말이라 한다. 포말은 파도의 외침이다. 바다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통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해 전달하려 하지만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막히곤 한다. 부딪힐 때 순간적으로 생기는 포말이 파도의 최후의 외침이자 영원히 기억될 한 순간인 것이다.

사랑의 포말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포말은 한편의 기억으로 영원히 남는다. 사실 지금껏 ‘낭만’이란 말을 믿지 않았다. 주위에서 낭만을 논할 때면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사랑의 허상을 묘사하곤 한다. 그래서인지 낭만은 사랑의 이면을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 글자라고 생각했다. 작중에서 도담과 해솔은 파도가 일고 있음에도 서로를 향해 헤엄쳐 손을 잡으며 물결을 이겨냈다. 조류에 떠밀려 가는 과정에서 모진 역량을 사랑의 포말로 극난한 것이다. 그들의 세상은 파란 낭만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다. 사랑이 부재한 세상이 아닌 이상 사랑은 낭만으로 귀결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에 대한 완벽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그저 오늘도 순간의 감정들에 충실할 뿐이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을 보고] 우연히 다시 마주치고 싶은 사람

우리 모두 한 번쯤 여진이 어려워 아쩔 수 없이 마음이 멀어지는 경험을 경험한 적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때로는 평생 해소될 수 없는 아쉬움이 마음 속에 남게 된다.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에선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연인이 나온다. 우연으로 시작돼 필연으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름의 향기와 함께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려준다.

이 영화는 뺑뺑이를 운영하는 ‘미수’와 고등학생 손님인 ‘현우’가 우연히 만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소년원에서 방금 나온 학생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던 현우는 미수네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다. 둘은 서로에게 순수하고 따스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현우는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되고 미수 역시 형편이 어려워 가계를 단는다. 시간이 흘러 미수는 우연히 현우를 만나지만 하필 이날은 현우의 입대 전날이었기에 둘은 다시 어긋나게 된다. 이후에도 미수와 현우는 잠깐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그들은 매년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서로가 처한 상황이 그들의 사랑을 방해한다.

요즘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다. 그러나 마땅한 연락 수단이 없던 미수와 현우는 서로를 더 간절히 원하고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이러한 간절함으로 인해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현재의 우리는 너무 손쉽게 상대와 연락할 수 있기에 이러한 간절함을 잊은 것이 아닐까?

영화에선 “비행기와 사랑의 공통점이 뭐예요? 출발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란 대사가 나온다. 큰 에너지가 요구되는 사랑은 이별의 아픔까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사랑을 꿈꾸고 희망한다. 우리는 비록 사랑의 출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싶어 한다.

인간은 매 순간 수많은 기억들을 망각하면서도 정작 어떤 기억들로 인해 평생을 지배당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는 기억 중 사랑에 대한 것도 포함될 것이다. 비록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그 순간의 감정과 추억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유는 그 감정이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색깔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때론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꿈꾸고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이 영화는 그 시절의 사랑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게 만들고 다양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미수와 현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운명이라면 미수와 현우처럼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 만나 서로를 그리게 될 것이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1092호 학보를 읽고

마지막이란 영광은 다시 날아오를 여정의 발판이 되어

치열했던 학교생활의 한 페이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쌀쌀했던 날씨가 한껏 더워지며 우리학교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지난 외대학보 1092호에선 △강의 녹음본 거래△ 불명확한 계절학기 개설△우리 학교 봄 축제 개선 방향을 다루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3면에선 수업 녹음본 거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수업 녹음본 거래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금전 거래가 오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한편 이는 교수의 수업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 강화 및 홍보 방법도 있었지만 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 본부 측에서 총학생회와의 소통을 통해 교직을 수정하거나 새로 신설해 학내 구성원 모두가 위법 행위로부터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

3면의 또 다른 기사로 불명확한 계절학기 개설과 관련된 문제를 짚었다. 해당 기사에선 과거 다뤘던 계절학기 강의 개설 기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강 인원 저조를 이유로 다양한 학과의 수업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 이에 외대학보는 특수교육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에서 진행하는 집중이수과정과 국내외 다른 대학 학점교류 프

정원준(영어·영문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로그램 운영을 방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특교원 집중이수과정은 특정 학교들에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의 경우 우리학교 수업 수강 신청보다 까다롭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다. 이에 외대학보는 온라인 강의 확대와 폐강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계절학기란 제도를 통해 문제 없이 학점을 보충할 수 있길 고대한다.

4면에선 축제 기획 과정 속 부족한 소통문제가 지적됐다. 기획사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홍보 방식△일반 학우들의 의견 개진 기회 부족△후보 기획사 측의 자료와 선정 방식 비공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단서 제고를 비롯한 홍보 수단의 변화를 제시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대학 축제인 만큼 우리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더욱 행복한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

한 학기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시기이자 다음으로 나아갈 여정의 발판이 된다. 늘 우리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준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힘찬 다음 여정을 응원한다.

1092호 학보를 읽고

다사다난했던 24-1학기를 보내며

외대학보 1092호를 읽는 현재 이번 학기 기말고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선 △강의 녹음본 거래 문제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미래외교포럼△인문학 침체에 관한 시사점을 비롯해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면에선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아일랜드 대사 초청 강연을 언급하며 ‘미래외교’에 있어서 우리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국제행사와 외교행사 프로그램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의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국제무대에 대한 생각을 키우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국제기구 및 단체의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단 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캠퍼스에 한정된 프로그램이기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생들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중동아프리카학이나 중남미학과같은 전공이 글캠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캠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가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3면에선 강의 녹음본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대부분 학생이 강의를 녹음하는 이유는 강의의 효과적 복습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의 녹음본을 통한 영리 목적의 금전거래 또한 발생하고 있기에 문제가 됐다. 외대학보에서 다뤘듯 강의 녹음본 거래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또한 교수의 수업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강의 녹음에 관한 문제는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면에선 ‘인문학 침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공계열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자율전공학부의 개설로 인해 상경·공학 계열로의 집중이 예상되는 문제는 인문학이 학계에서 위태롭게 서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인문학’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인문학 연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기술이 발전하기에 언어 공부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현재도 여러 분야에 서 인간에 의한 통역이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어 능통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있다. 우리 학교가 인문학 연구를 지속한다면 기업들이 또한 그 필요성을 인정해줄 것이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외국어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 밖에도 계절학기 개설이나 소통 부족 속의 축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깊은 문제가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며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계속 이어질 우리의 이야기

1년 6개월이라는 학보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순간이다. 그동안 외대 학보에 남긴 여러 글들을 돌아보며 내가 이곳의 일원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1년 6개월이란 시간은 누구에겐 너무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구에겐 너무 길어 채 다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기간일 수도 있다. 적어도 나에겐 길고 짧고를 떠나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하고 의미있는 순간들이었다. 1003호이자 종강호가 된 이번 외대학보에선 학내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4면에선 아직 조성되지 않은 채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학교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송도캠에 예산이 집중되느냐 우리학교의 다른 곳에 예산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더불어 많은 세금이 유치되는 데에 쓰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송도캠 문제가 해결돼 우리학교가 대학 최초 삼원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

5면에선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 언급됐다. 최근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통학버스 운전기사분들의 위험한 운행과 운행 도중 폭설에 관한 불편함이 여럿 올라왔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버스 회사로부터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때다. 특히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통학버스가 아니면 마땅히 통학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더욱 빠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측과 버스 회사 측의 안전한 운영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통학버스가 되길 희망한다.

7면에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당뇨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뇨병은 원래도 고질적인 성인병이었으나 그 발병 시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외대학보 기사에선 올바른지 못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을 근거로 청년들에게 당뇨병을 예방할 것을 권고하며 당

뇨병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자극적인 음식들이 만연한 요즘 시대에서 우리학교 학생들도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12면에선 김성훈 영화감독(이하 김 감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넷플릭스(Netflix) ‘킹덤’시리즈부터 여러 가지 명작 영화를 남긴 김 감독과의 인터뷰에선 영화 제작에 대한 상세한 과정과 영화 제작 시 어려움 등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할 수 있을 법한 여러 질문들을 나눌 수 있었다. 김 감독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영화 제작에 흥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하라는 희망찬 말을 남기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줬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외대학보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제작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길 희망한다.

지금 빈의자를 쓰는 이 순간 내가 외대학보에 남기는 마지막 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한다. 정기자 시절 처음으로 썼던 사설인 ‘뒷담하는 기자’에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할 수 있는 건 잘 할 거고, 못하는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항상 잘하고자 노력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늘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좋은 후배 기자들과 함께 편집장이라는 직책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동안 함께해줬던,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남길 기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와 함께 외대학보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외대학보 기자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임채린 편집장 06chaelin@hufs.ac.kr



뉴스 회피와 외대학보에 대한 단상

과거에는 텔레비전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종이신문을 정독하여 뉴스를 접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디지털 소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뉴스 소비 행태도 크게 달라졌고, 특히 최근에는 뉴스 이용을 외면하는 ‘뉴스 회피(news avoidance)’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의 뉴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뉴스 회피는 조사 대상국 46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 한국에서도 2명 중 1명(50%)이 의도적으로 뉴스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 뉴스 편향, 정치적 무관심, 부정적 감정 유발, 정보 과잉, 그리고 뉴스 피로(news fatigue) 등 정보 범람 시대의 다양한 폐해가 제시되었다.

외대학보 주간을 맡고 있는 필자에게 뉴스 회피 현상은 외대학보의 저조한 뉴스 이용률을 떠올리게 한다. 격주로 발간되는 종이신문 형태의 외대학보는 오랫동안 가판대에 방치되기 일쑤이며, 온라인판 기사의 클릭 수나 댓글 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의 팔로워 수는 500명 정도로, 2만 명이 넘는 외대 구성원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실제로 여러 학생에게 외대학보를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상당수의 학생이 존재는 알지만 최근 기사를 읽은 경험이 없거나, 심지어 신입생 중에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왜 학보 기사는 잘 읽히지 않을까? 우선,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가 큰 원인일 것이다. 주로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한국의 특성상, 포털 뉴스에 노출되지 않는 학보 기사는 대학사회의 무관심 속에 외면되기 쉽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뉴스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고 싶은 뉴스’를 찾는 독자에게 ‘봐야 하는 뉴스’를 제공하는 학보는 굳이 찾아서 읽을 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바쁜 학업 일정과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학보 기사를 읽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외대학보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하다. 기성 언론사가 담아낼 수 없는 대학사회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여론을 선도하며 학내 진실을 보도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며, 학생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언론인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대학보는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노출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가치 있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같은 뉴스라도 독자들에게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환경에서 모바일을 통한 뉴스 노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종이신문을 제외한 외대학보의 온라인 배포는 이북(ebook), 인스타그램, 외대학보 웹사이트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은 모바일 시대에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 한국외대 모바일 앱에 학보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기사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자체 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학 내 다양한 의견을 조망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학문적·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외대학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성욱(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부엉이 메신저



한 학기동안 좋은 글 써주신 외대학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편집장님 수고했어

-익명-

이번 한 학기 고생 정말 많았어~! 사랑해 내 동개!

-D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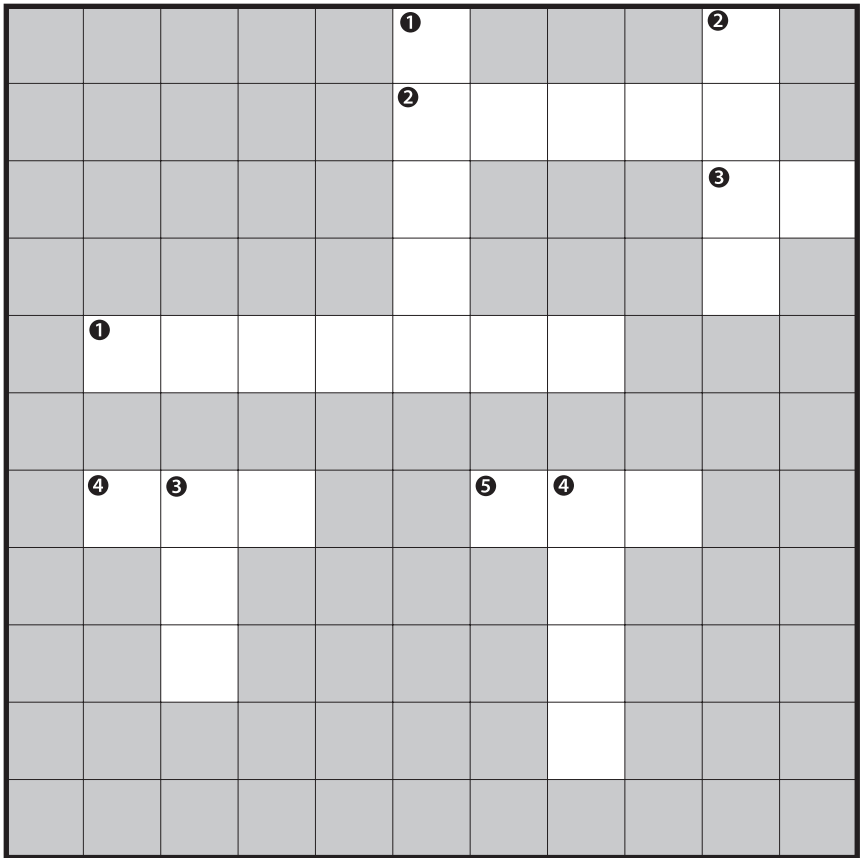
외대학보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다들 화이팅!

-익명-

종강하게해주세요 빨리요 종강!!!

-다다다-

십자말풀이



- 가로**
1. 지난날부터 진행한 ‘시네라운지 118’ 영화제에서 ○○○○○○ 주한 포르투갈 대사는 개막작 상영 전 인사말을 통해 영화제 전체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했다. (2면 참조)
 2. ○○○○○ 제44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며 음주운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8면 참조)
 3.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은 올해 예비군 ○○ 사업으로 △방 △이온음료△자외선 차단제를 제공하고 학습권 침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수업권 보장을 위한 자체 보완책을 운영했다. (3면 참조)
 4. 우리학교 일본연구소는 2024 일본 ○○○ 영화제를 개최했다. (2면 참조)
 5. 당뇨병은 혈액 내의 ○○○이 높아 소변으로 ○○○이 빠져 나오는 현상이다. (7면)

- 세로**
1. 지난 2008년 조정 계획이 수립된 우리학교 제3캠퍼스의 명칭 (4면 참조)
 2. 지식출판콘텐츠원이 겪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교재를 스캔해 전자기기를 이용해 수업을 듣는 경우가 ○○ ○○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3면 참조)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형 혹은 ○○○이 부과될 수 있다. (8면 참조)
 4. 우리나라의 도시민에게 ○○○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9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6chael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임채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